



미 증시, OPEC 감산 결정 등에도 전약후강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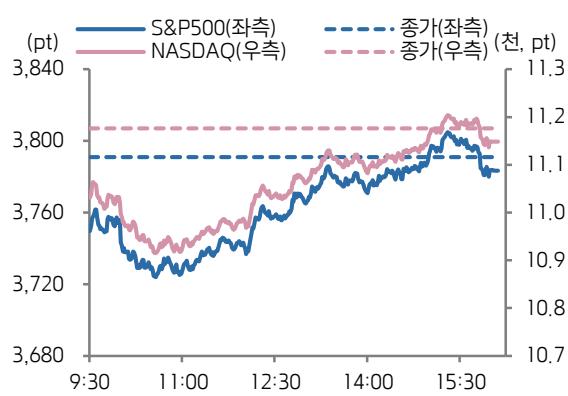
5일(수) 미국 증시는 2거래일 연속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속 OPEC의 200만배럴 감산 결정 등으로 장 초반 1% 넘게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바이든의 전략 비축유 방출 소식, 고용지표를 앞둔 대기심리 등을 소화하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다우 -0.1%, S&P500 -0.2%, 나스닥 -0.3%).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하고, 연준은 향후 방향성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

미국 9월 ADP 비농업 20.8 만(예상치 20 만건, 전월치 18.5 만건), 산업별로는 무역, 운송 및 유틸리티 부문에서 14.7 만건 증가했으나 제조업에서는 13 만건, 원자재 및 광업 분야에서는 16 만건 감소. 9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56.7(예상치 56.0, 전월치 56.9) 기록하며 예상치 소폭 상회. 물가지수 52.5→51.7, 고용지수 50.2→53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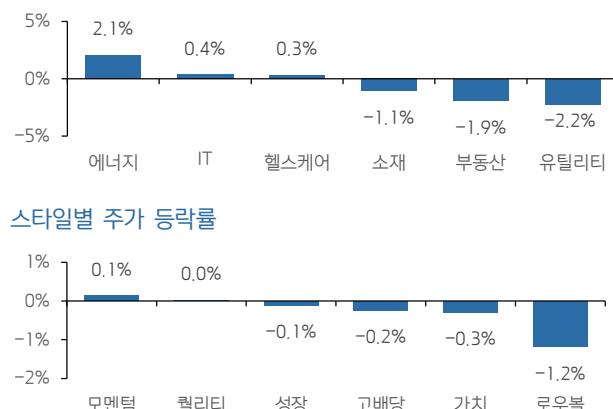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2.1%), IT(+0.4%), 헬스케어(+0.3%) 업종은 상승, 유틸리티(-2.2%), 부동산(-1.9%), 소재(-1.1%) 업종은 하락. OPEC+ 회담에서 하루 200 만 배럴 감산 합의한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 강세. 애플(0.21%), 알파벳(-0.21%), 아마존(-0.12%), 메타(-0.93%) 등 주요 시총 상위주들은 상승 출발했으나 상승폭 축소 후 하락전환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반등한 영향으로 엔비디아(0.32%), 마이크론(1.43%), AMD(0.06%) 등 반도체 관련주는 반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783.28	-0.2%	USD/KRW	1,411.01	-1.07%
NASDAQ	11,148.64	-0.25%	달러 지수	111.21	+1.04%
다우	30,273.87	-0.14%	EUR/USD	.99	+0.04%
VIX	28.55	-1.79%	USD/CNH	7.07	+0.02%
러셀 2000	1,762.69	-0.74%	USD/JPY	144.52	-0.08%
필라. 반도체	2,523.61	+0.9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2,853.48	-0.5%	국고채 3년	4.172	+10.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4.105	+11.5bp
Eurostoxx50	3,447.72	-1.05%	미국 국채 2년	4.148	+5.6bp
MSCI 전세계 지수	580.85	-0.22%	미국 국채 10년	3.753	+12bp
MSCI DM 지수	2,500.07	-0.4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09.52	+1.78%	WTI	87.94	+0.21%
MSCI 한국 ETF	49.83	-1.72%	금	1724.9	+0.2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0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416.5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전일에 이은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 지속 여부

주요 체크 사항

2. OPEC 감산 결정 이후의 높아진 유가 민감도가 국내 증시 장중에 미치는 영향
3. 여타 업종에서 반도체로의 자금 로테이션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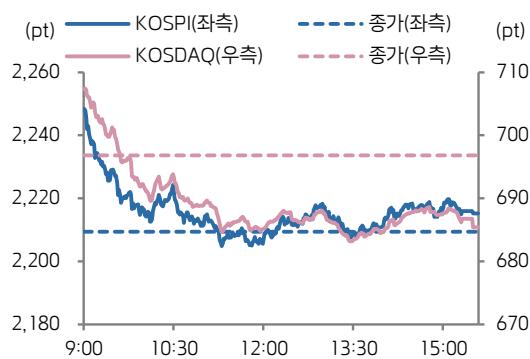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증시가 전약후강의 흐름을 보인 것을 비롯해, 10 월 들어 미국, 한국 등 주요국 증시는 9 월달의 폭락세를 만회해가고 있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주가 복원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크로발 악재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지난 4 일에는 8 월 구인건수 둔화로 연준의 정책 속도 조절 기대감이 생성됐으나, 5 일에는 9 월 ISM 서비스업지수(56.7, 예상 56.0), 3 분기 성장률 전망 상향(2.3%→2.7%)으로 이 같은 기대감은 다시 후퇴되는 등 지표 결과에 따라 일종 주가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이처럼 9 월 중 증시 조정 핵심 주체였던 연준의 긴축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이슈인 가운데, 5 일 OPEC+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200만배럴 감산을 단행했다는 점도 잠재적인 부담 요인. 연준 등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발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것이 감산의 표면적인 배경. 그러나 지난 7 월 바이든 중동 순방 이후에도 증산이 아닌 9 월 감산(-10만배럴)을 단행했던 것에서 추정해볼 수 있듯이, 사우디 등 산유국들과 미국과 다른 노선을 취하려는 모습. 물론 바이든 정부는 같은 감산 결정을 놓고 러시아에 동조하는 근시안적 행동이라 비판하면서 11 월 전략비축유 1,000 만배럴 추가 방출로 대응하고 있음. 한동안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38%대로 급락했던 지지율이 여름 이후 기름값 하락 등에 힘입어 지지율이 42%대로 회복된 만큼, 11 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축유 방출, 러시아산 유가상한제 등 여러 수단들을 통해 유가 상승에 대응할 것으로 보임. 정부 대응, 수요 부진 등으로 유가의 상단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지만 시장참여자들 입장에서도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유가 등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중간선거 때까지는 다시금 안고 가야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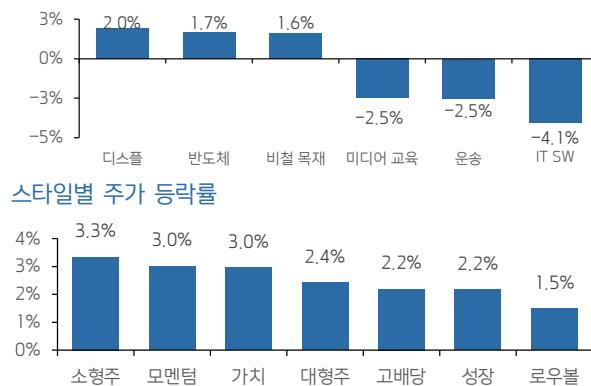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 속 여타 업종에서 반도체로의 자금 로테이션, NAVER(-7.1%) 등 성장주 동반 약세 등으로 혼조세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1.6%). 금일에는 OPEC 발 유가 불확실성, 미국 증시 약세 등에 영향을 받아 제한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장중에는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부진한 상황 속에 최근 바닥권 인식에 따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급등으로 인한 여타 업종 혹은 성장주에서 반도체로의 자금 로테이션 현상이 지속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